

과 목 코 드	<b>01</b>
시행일	1. 16.

# 2019학년도 신입생 1차 진단평가

## 국 어

1

### ● 문항수 및 배점 ●

※ 객관식 28문항 60점 / 주관식 7문항 40점 / 계 35문항 100점

※ 각 문항마다 배점이 표시되어 있음

### 1. 다음 라디오 방송을 들은 후 '나무 개구리'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점]

청소년 여러분, 개구리는 물이 없거나 추운 곳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막은 매우 건조할 뿐 아니라 밤과 낮의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생물들이 살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에 서식하는 개구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호주 북부에 있는 사막에 살고 있는 '나무 개구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나무 개구리는 밤이 되면 일부러 쌀쌀하고 추운 밖으로 나와 나무에 앉았다가 몸이 싸늘하게 식으면 그나마 따뜻한 나무 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치 추운 데 있다 따뜻한 곳으로 갔을 때 안경에 습기가 서리듯, 개구리의 피부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바로 그 수분으로 나무 개구리는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마른 사막에서 추위를 이용하여 물방울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나무 개구리가 생각할수록 대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 ①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의 방법을 찾아내고 있군.
- ② 천적의 위협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 생존하고 있군.
- ③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있군.
- ④ 주어진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켜 생존을 이어가고 있군.
- ⑤ 다른 존재와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강한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군.

### [2 ~ 3] 다음은 학급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급회장:** 다음 주에 가는 수학여행에서는 조별로 방을 쓰고 활동도 조별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를 짜는 것이 좋을지,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중학교 수학여행 때는 번호 순서대로 조를 짰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하지 않은 아이랑 한 조가 되다 보니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더라고요. 숙소에서 다른 방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 원하는 친구들끼리 조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민희:** 저도 수학여행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조가 되면 수학여행이 더욱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조에도 못 들어가고 홀로 남는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또한 여행을 통해서 평소에 어울리지 않던 친구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 순서대로 조를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번호 순서대로 조를 짜다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같은 조가 되면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반 전체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원하는 친구와 조를 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학급회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어떤 방식으로 조를 짜든 불만이 있는 학생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선 수학여행 장소부터 결정하도록 합시다.

**학급회장:**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원하는 친구끼리 조를 짜야 한다는 의견과 번호순으로 하자는 의견,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자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의견에 대해 투표를 해서 조를 짜는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 2. 위의 토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2.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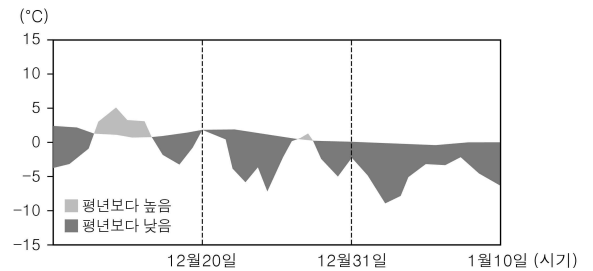
- 안건 제시  
: 토의할 사안을 제시함.....①
- 의견 발표  
: 안건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발표함.....②
- 의견에 대한 평가  
: 제시된 의견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평가함.....③
- 의견의 내용 정리  
: 제시된 의견을 세 가지로 정리함.....④
- 의결 방법 제시  
: 의결할 내용을 제시하고 의결 방식을 발표함..... ⑤

### 3. '수지'에게 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 ①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②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③ 안건에서 벗어난 내용은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④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 ⑤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의견은 존중해야 합니다.

### [4 ~ 5]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여러분, 지난 겨울에 참 추웠죠?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파가 자주 발생할까요? 평년의 경우에는 '극 제트'라는 공기 장벽 때문에 북극 지방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등으로 북극 방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북극 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극 제트'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북극 지방의 몹시 찬 공기가 '극 제트'를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 추위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한파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북극 지방의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고 질문해 봅시다.

**학생 1:** 어느 정도 추위가 한파라고 하는지,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학생 2:**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한파가 자주 발생하나요?

**학생 3:** 한파로 인한 피해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방금 ㉠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비 방안'에 대한 글을 써 오세요.

**4. 선생님의 첫 번째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2점]**

- ① 한파의 특징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다.
- ② 한파의 빈번한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한파와 대비되는 자연 현상을 예로 들고 있다.
- ④ 한파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⑤ 한파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5. 위 수업을 듣고 ㉠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점]**

주제 : 한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비 방안

1. 서론
  - 가. 한파에 대한 정의.....①
  - 나. 지역별 한파 발생 빈도..... ②
2. 본론
  - 가. 한파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③
  - 나. 한파를 초래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④
  - 다.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⑤
3. 결론 : 논의를 종합하여 주제를 강조

**[6~7] <보기 1>은 사실을 쓰려는 학생의 '작문 상황'과 '사고 과정'이고, <보기 2>는 작문에 활용하려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1>**

**[작문 상황]**

'신문 사설 읽기반' 동아리에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사실을 써 보라는 과제를 부여받음.

**[사고 과정]**

오늘 신문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예전에 다른 신문에서 자격증 취득 열풍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봤던 기억을 떠올렸어. 그리고 나니 '자격증 취득 열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탐구하여 사실을 써 보고 싶어. 그러려면 우선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한 다음 그 원인을 분석해야겠지. 그리고 나서는, 직장인들이 자격증 취득 열풍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논지로 삼아 강조해야겠어. 물론, 자격증 취득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겠지.

**<보기2>**

**(가) 설문 조사 결과 자료**

직장인 9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1.9%가 '직장 생활 중 자격증 취득 준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나) 연구 보고 자료**

19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6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거나 옮겨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문 기사 자료**

1. 현재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모두 3천여종, 1년에 발급되는 자격증은 90만 건을 넘는다.
2. 자격증 열풍 속에서, 자격증을 따고 싶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교재를 팔거나 비싼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라) 인터뷰 자료**

"직장 생활 틈틈이 자격증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기 계발에도 도움이 되고 진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더군요."

**6. <보기 1>과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제문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점]**

- ① 국가는 공인받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②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불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직장인이 많다.
- ④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⑤ 직장인들에게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보기 2>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가)를 제시하면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을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 ② (나)를 활용하여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의 원인 중 하나를 설명해야겠어.
- ③ (다)-1을 제시하면 자격증 취득 열풍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강조할 수 있겠군.
- ④ (다)-2를 활용하면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 ⑤ (라)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거야.

**[8~13, 주관식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1.8점]**

- 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 ② 저 사람이 우리 삼촌이야.
- ③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④ 저희를 살려주는 샘 치고 용서해주세요.
- ⑤ 내 동생은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이다.

## 9. &lt;보기&gt;를 참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점]

&lt; 보 기 &gt;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쓰고, 단어들의 결합이 합성어 혹은 파생어가 되어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 쓰이는 경우에도 붙여쓴다.

- ① - 작은형은 운동을 좋아한다.  
- 덩치가 작은 형이 운동을 좋아한다.
- ② - 큰집에 제사지내러 가자.  
- 예전에 살던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싶다.
- ③ - 한번의 실수로 그녀는 시험에서 탈락했다.  
- 심심한데 노래나 한 번 불러볼까?
- ④ - 아기가 잠들었으니 큰 소리로 떠들지 마라.  
- 문제없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⑤ - 숲속에서 처량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 그는 사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는소리만 한다.

## 10. &lt;보기&gt;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2점]

&lt; 보 기 &gt;

그는 소리도 없이 나에게 다가왔다.

- ① 안긴문장 내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②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으로 구분될 수 없는 홀문장이다.
- ③ 안긴문장이 안은문장 내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다가왔다'를 수식하고 있다.
- ⑤ 안은문장과 중복된 문장성분이 안긴문장 내에서 생략되어 있다.

## 1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높이는 대상이 다른 것은? [2.2점]

- ①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가셨다.
- ② 할아버지가 손이 크시다.
- ③ 식사를 마치신 삼촌마저 식당에 계셨다.
- ④ 사장님께서 사무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주무셨다.
- ⑤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만 봐도 매우 기뻐하셨다.

## 12.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없는 문장은? [1.8점]

- ① 문을 잘 잠궜.
- ② 나는 깍두기를 좋아해.
- ③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안 될 일은 안 돼.
- ④ 학교에 지각할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일어날걸.
- ⑤ 지금 헤어지면 우리는 과연 몇 월 몇 일에 만날까?

## 13.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잘못된 것은? [2.4점]

- ① 꽃잎[곤닙]이 떨어졌다.
- ② 개가 그릇을 활네[할레].
- ③ 부엌일[부엌닐]을 거들어주었으면 좋겠어.
- ④ 이유 여하를 막론[망론]하고 그 결정은 부당해.
- ⑤ 그 사람은 오랜 시간동안 색연필[생년필]로 색칠을 했다.

## &lt;주관식 1&gt; &lt;보기&gt;의 문장을 모두 바르게 고쳐 보시오. [6점]

&lt; 보 기 &gt;

- ㉠ 친구 집에 들려서 놀게요.
- ㉡ 토끼가 늑대에게 먹혀졌다.
- ㉢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시래.

## [14-16, 주관식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어휘 풀이]

\* 걱정: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

\* 분분한: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한.

\* 하롱하롱: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꽃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유치환, '깃발'

[어휘 풀이]

\* 해원: 바다.

\* 노스텔지어: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 이념: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 14.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점]

- ① 공간을 이동함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② 하강적인 시어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비판적 어조로 이별의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운율을 만들어 낸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 15. (가)에서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연관 지었다고 할 때,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1.8점]

	자연 현상	인간의 삶
①	꽃	사랑, 청춘
②	낙화	이별, 죽음
③	무성한 녹음	고민, 갈등
④	열매	성숙, 결실
⑤	가을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기

## 16. (나)의 시어와 시구를 해석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은? [2.2점]

- ① '순정'은 깃발이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한다.
- ② '해원'은 깃발이 한계에 부딪혀 매달려 있는 현재의 장소를 의미한다.
- ③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는 깃발을 아우성으로 표현하여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난다.
- ④ 깃발이 해원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를 '이념의 꽃대'로 표현하였다.
- ⑤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깃발을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주관식 2> (나)의 ㉠과 같은 표현법을 역설법이라고 한다. 역설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3점), (가)에서 같은 표현법이 활용된 시구를 찾아 쓰시오.(3점) [6점]

## [17~18, 주관식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에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厚薄)\*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떠 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보되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짙 않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열고 돌 우는 동짓달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나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또 고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옷을 뽀 말아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잡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대고, 어떤 때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 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역시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 와 동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쉬며 꾸짖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도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厚待)\*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薄待)\*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그리고 친구가 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행해하는 법이 없다.

[중략] 가지를 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하늘에 감사하는 나무의 태도를 예찬하고 있다.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天命)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 보고, 흔히는 자기 쓸 곳 당는 대로 가지를 쳐 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곤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리어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 간 재목이 혹 자기를 해칠 도끼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요, 고독의 철인(哲人)이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현인이다. 불교의 소위 윤회설\*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다.

[어휘 풀이]

\* 후박: 많고 넉넉함과 적고 모자람.

\* 후대: 아주 잘 대접함.

\* 박대: 푸대접.

\* 견인주의자: 욕망을 의지의 힘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

\* 안분지족: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 윤회설: 죽음과 삶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설.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필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② 열거법과 대조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자기 자신을 비웃으며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현재형의 담담한 어조로 대상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18. 윗글의 '나무'가 지닌 속성과 인간의 삶에 주는 교훈을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나무의 속성	인간의 삶에 주는 교훈
①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앎.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야 함.
②	고독을 알고, 이기고 견디고 즐길.	고독한 순간을 맞닥뜨리더라도 이를 견디어 내야 함.
③	친구가 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불행해하지 않음.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있음.
④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감.	운명과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야 함.
⑤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더라도 이를 원망하지 않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함.

<주관식 3> <보기2>는 윗글의 ㉠과 <보기1>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빈 칸에 이어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6점]

< 보 기 1 >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라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이성부, '벼'

< 보 기 2 >

정연: 내 생각에 ㉠과 <보기1>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표현 방식은 자연물을 활용했다는 점인 것 같아.  
다현: 맞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방식을 이야기해보자면 ( )라고 할 수 있지.

[19~21, 주관식 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대군이 비취를 불러, "너희들 열 명이 한 방에 같이 있으니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 하시고 다섯 명을 서궁에 가서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란, 은섭, 옥녀, 비취와 같이 즉일로 옮겨갔습니다. 옮기고 나서 옥녀가 말하기를, "그옥한 꽃, 가는 풀, 흐르는 물, 꽃다운 수풀이 정히 산가 같으니 참으로 훌륭한 독서당이라 할 수 있구나."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대답하기를, "산인도 아니고 중도 아니면서 이 깊은 궁 안에 갇혔으니 정말로 이른바 장신궁이다." 하였더니, 좌우 궁인들 모두가 자탄하고 울적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중략>

"오늘 저녁에는 나와 진사님 간에 금석(金石)의 약속이 있으니. 오늘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내일에는 반드시 담을 넘어오리라. 오면 어떻게 대접할까."

"수놓은 휘장이 겹겹이 둘러 있고 비단 좌석이 찬란하며, 술은 내와 같고 고기는 산터미와 같이 있으니, 아니 오면 그만이거나와 온다면 대접하기가 무엇이 어렵겠니."

그 날 밤에는 과연 오지 않았더라.

진사가 가만히 그 곳을 돌아본즉 담이 높고 넘어올 수 없었더라. 집으로 돌아가서 맥맥히 말도 아니하고 근심을 얼굴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름이 특(特)이라고 하는 한 동복(童僕)이 있어 꺾기 많더니, 진사의 얼굴빛을 보고는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진사께서는 필경 세상에서 오래 가지 못하리이다."

하고는 뜰에 엮드려 울기에, 진사가 끓어 앉아 그의 손목을 잡고 회포(懷抱)를 다 말하였더니, 특이 말하기를,

"어찌 일찍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제 마땅히 일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 하고는 곧 사다리를 만드니, 매우 가볍고 능히 걷었다 폄다 할 수 있는데, 접으면 병풍을 접는 것과 같고 편즉 오륙 장 가량이나마 되지만 손바닥 위에서 운반할 수 있듯이 편리했습니다. 특이 말하기를

"이 사다리를 가지고 궁전의 담을 올라 넘가서는 안에서 접어 두었다가 돌아올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하십시오."

하니, 진사가 특으로 하여금 뜰에서 시험해 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의 말과 같은지라. 진사는 매우 기뻐하여, 그 날 밤 궁중으로 가려고 할 때 특이 또한 품속에서 털옷과 가죽 버선을 내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넘어가기가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사가 그 계교를 써서 담을 넘어가 숲 속에 엮드리니, 달빛은 낮과 같았으며 궁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람이 안에서 나와 산보하면서 작은 소리로 시를 읊기에 진사가 숲을 헤쳐 머리를 내놓고,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기에 왔느냐." / 하니, 그가 웃으면서,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대답했습니다. 진사가 나아가 절하고 말했습니다.

"나 어린 사람이 풍류(風流)의 흥취(興趣)를 이기지 못하여 만사(萬死)를 무릅쓰고 감히 여기에 들어왔사오니, 엮드려 원하건대 낭자께서는 나를 어여삐 여겨 주시오."

자란이, "진사님의 오심을 고대하기를 대한(大旱)에 비를 바라는 것과 같이 있다가 이제야 다행히 뵈옵게 되어 저희들이 살아났사오니, 원컨대 진사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고는 바로 이끌고 들어가기에 진사가 층계를 거쳐 굽은 난간을 따라 몸을 가다듬고 들어오실 제, 저는 사창(紗窓)을 열어 놓고 옥등(玉燈)을 밝혀 놓고 앉아서 짐승 모양의 금화로에다 향(香)을 피우고, 유리 같은 서안(書案)에다 <태평광기(太平廣記)> 한 권을 펴들고 있다가 진사가 오심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절하니, 진사 또한 답례를 하더라. 손님과 주인의 예로써 동서(東西)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자란으로 하여금 진수기찬(珍羞奇饌)을 차려 놓고 자하주(紫霞酒)를 따라서 권하니, 석 잔을 마시고 좀 취한 듯이 말했습니다.

## ㉔“밤이 얼마나 길지요.”

자란이 곧 그 뜻을 알고는 휘장을 드리고 문을 닫고 나가더이다. 제가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나아가니 그 즐거움은 가히 알 것입니다. 밤은 이미 새벽이 되고 못 닭은 날 새기를 재촉하기에 진사는 바로 일어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후부터는 어두울 때 들어와서는 새벽에 돌아가시니 그렇게 하지 않는 저녁이 없었지요. 사랑은 깊어 가고 정은 두터워져 스스로 그 깊이를 알지 못하였지요. 이로 인하여 궁중 담 안의 눈 위에는 자주 발자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궁인들은 다 그 출입을 알고 위험하다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진사가 좋은 일의 끝이 화기가 될까봐 문득 근심하고는 마음 속으로 크게 두려워서 종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특이 바깥에서 돌아와,

“저의 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까지 상을 논하지 않음이 옳은 일이옵니까?” 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특이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보물을 얻은 후에 저와 진사를 산골로 끌고 들어가서 진사를 죽인 후에 저를 차지하려는 흥계를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진사는 ㉕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라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 작자미상, 윤영전 -

##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장면이 바뀔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다.
- ③ 서술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고 있다.
- ④ 인물이 겪은 이야기와 전해들은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다.
- ⑤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보다 이야기를 듣는 자의 신분이나 격이 동등하거나 더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0. 윗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점]

- ① 진사 : 금지된 사랑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
- ② 윤영 : 진사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③ 자란 : 친구인 윤영의 사정을 알고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다.
- ④ 대군 : 윤영의 배신을 알면서도 모른 척 진심을 숨기고 있다.
- ⑤ 특 : 겉으로는 진사를 돕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있다.

## 21. ㉕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한자성어(漢字成語)는? [1.8점]

- |              |              |
|--------------|--------------|
| ① 백면서생(白面書生) | ② 장삼이사(張三李四) |
| ③ 일벌백계(一罰百戒) |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
| ⑤ 권선징악(勸善懲惡) |              |

<주관식 4> ㉔는 자신의 뜻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를 <보기>의 형식에 따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6점]

< 보 기 >

( )가 ( )에게 ( )고 부탁하고 있다.

## [22-23, 주관식 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아낙네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나 하니,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산발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  
슬프다, 외딴 살이 어찌 좋으리.  
험하고 험한 산골짜에서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가고 싶어도 ㉖벌슬아치 두렵다네.

-김창협, 산민(山民)-

(나)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지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해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 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정약용, 고시8-

## 2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 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②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하고 있다.
- ③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④ 일상적 삶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 ⑤ 과거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 23.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여기서 산민(山民)이란 산 속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군.
- ② 당시 관리들의 횡포가 산 속에까지 이를 정도로 가혹했었군.
- ③ 이 작품을 읽으니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말이 떠오르는군.
- ④ 산민(山民)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손님 접대에는 소홀함이 없었군.
- ⑤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사나운 호랑이가 많은 산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겠군.

<주관식 5> (가)의 ㉔에 해당하는 말을 (나)에서 찾아 모두 쓰시오. [4점]

**[24~26, 주관식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禮)는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일컫는 말이다. 예는 동아시아의 유교 문명권 국가에서 법치(法治)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예치(禮治)를 내세웠기 때문에 독특한 지위를 지녔다. 이들 국가는 백성들이 권력 등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가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이상적인 통치로 여겼다. 이를 위해서 바른 도리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때에 예를 가르치는 것이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유교 문명권의 국가는 예로써 백성을 가르친다는 의미의 예교를 통치의 ㉠**방책(方策)**으로 표방(標榜)하였다.

조선 왕조가 문화와 문물의 기틀을 유교적으로 정비하면서 예치를 표방할 때 우선 힘쓴 것은 예의 규범을 ㉡**제정(制定)**하고 음악과 가무를 정비하는 일, 즉 예악 정비였다. 흔히 조선 왕조의 정치사상이나 사회 규범을 일컬어 예악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이 예와 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유교는 사서삼경을 경전으로 삼아 교육 체계를 확립하였다. 사서 중에서 중용, 대학은 예기라는 책의 한편이었던 것을 송나라 사대부들이 독립시킨 것으로, 예기는 각종 제도와 규범, 음악, 의례의 목적과 가치, 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보다 예기는 국가의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참고 서적이 되었다.

예기에서는 예와 악의 본질이 각각 구별과 조화에 있다고 보았다. 이때 구별은 모든 사람이 상하 관계 속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의미로 신분 사회의 차등적 질서를 뒷받침하였다. 신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별만 강조하면 서로 ㉢**소원(疎遠)**해져서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補充)**하는 것이 음악이다. 음악은 차이를 넘어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므로 음악을 통해 정서적 교감(交感)과 감정적 동화(同化)를 이루어 서로 가까워지게 된다. 서로 가까워지지만 하면 상하의 질서가 무너져 이 또한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구별하면서도 조화하고 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공자는 “예에 통달하고 악에 통달하지 못하면 메말랐다고 하고, 악에는 ㉤**통달(通達)**했으나 예에는 통달하지 못하면 이것을 치우쳤다고 이른다.”라고 하였다. 예와 악은 대립하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다르지만 공동의 목적을 갖는다. 이처럼 예와 악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이 될 정도로 중요하였다.

백성과 지배 계층이 즐기는 음악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백성의 마음이 음악으로 표현된다면 역으로 음악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음악을 담당하는 직책인 악관은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규범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진·한을 거치면서 음악을 통해 마음을 교화하는 일보다 지배 계급의 문화·문물을 정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악관보다는 예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것은 중세의 정치사상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정서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통치를 반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배 계급의 이념과 가치를 백성들이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점점 굳어져 갔다는 것을 알려준다.

**24.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 ① 핵심적 개념들의 역할과 상호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경험적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대조하면서 특정 이론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범위를 나누어 개념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이론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문화와 문명의 발전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25.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점]**

- ① 나연: 악이 공동체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정연: 유교 문명권 국가에서 예(禮)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지효: 백성과 지배 계층이 즐기는 음악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④ 미나: 진·한을 거치면서 악관보다 예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⑤ 채영: 예기가 국가의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참고 서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점]**

- ① ㉠: 방법과 궤를 아울러 이르는 말
- ② ㉡: 다시 정리하거나 정비함
- ③ ㉢: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함
- ④ ㉣: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 ⑤ ㉤: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훤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함

**<주관식 6> <보기>는 윗글을 읽고 내린 판단이다. (가)~(마) 가운데 (1)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로 답하고, (2)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하시오. [6점]****< 보기 >**

- (가) ‘예’와 ‘악’은 상호 대립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악’은 신분 사회의 차등적 질서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다) 동아시아 유교 문명권 국가에서 백성에 대한 지배층의 인식은 ‘백성이란 가르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 (라) ‘악관’은 음악에 담긴 백성의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통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마) 지배 계급의 입장에서 중요시한 통치 이념이 ‘예’와 ‘악’이라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보다는 ‘악’이 더 중요한 통치 이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 [27~28, 주관식 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터치스크린은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에 나타난 문자나 버튼 등의 위치에 사람의 손 또는 펜과 같은 물체가 닿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특정한 기능을 처리하는 화면이다. 이것은 기존 입력 장치에 비해 정확성이나 문자 입력 등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손가락을 접촉하는 것만으로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터치스크린은 기본적으로 터치 패널,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터치 패널은 화면의 앞면에 덮여 있는 투명한 입력 장치이다. 투명 전도막이 증착된 필름 또는 강화 유리로 구성된 적층 구조로 되어 있고, 접촉 입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입력 좌표를 검출하여 컨트롤러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컨트롤러는 터치 패널에서 전송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화면상의 좌표로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소프트웨어는 컨트롤러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해 터치 패널이 각 운영 시스템에 맞게 구현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터치 패널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손가락이 광선을 차단하는 위치를 검출하는 '광학 방식', 표면에 압력을 가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위치를 인지하는 '저항막 방식', 손가락 자체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 '정전 용량 방식' 터치 패널 등이다. 이 가운데 저항막 방식과 정전 용량 방식이 대표적인데, 특히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휴대용 게임기와 내비게이션, 항공기의 객실용 모니터 등에 이용되고 있다.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2매의 투명 전도막이 0.1mm 정도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있다. 위 판은 압력을 받아 휘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로 필름이 사용되고, 아래 판은 필름, 플라스틱, 강화 유리 등이 사용된다. 투명 전도막 사이에는 '스페이서'라 부르는 절연체 알갱이를 배치하여 두 투명 전도막이 잘못 접촉되는 것을 방지한다. 투명 전도막에는 각각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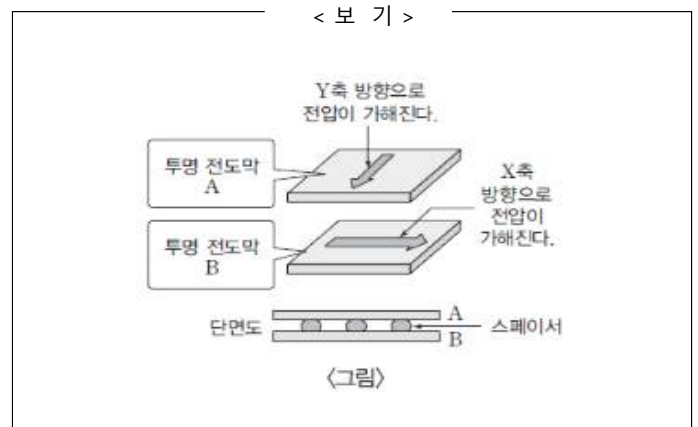
그렇다면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입력의 위치를 어떻게 검출할까? 표면을 손가락이나 펜으로 누르면, 압력에 의해 투명 전도막 A가 휘면서 2매의 투명 전도막이 접촉하는데, 접촉한 부분을 통해 전기가 흐르고 그 위치에 따라 투명 전도막에 가해지는 전압의 값이 변한다. 이때 먼저 투명 전도막 A의 접촉된 부분과 투명 전도막 B 사이의 전압을 측정해서 입력 위치의 X좌표를 안다. 다음 순간, 이번에는 투명 전도막 B의 접촉된 부분과 투명 전도막 A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면 입력 위치의 Y좌표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계속 서로 바꾸어 가며 X와 Y좌표를 검출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정전 용량 방식은 겉 표면 렌즈와 투명 전극 필름, 액정을 붙여 그 사이에 공간을 없앤 것으로 누르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지해 터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투명 전극 상에 손가락의 터치 등으로 전도체가 닿을 경우 절연층에 일정한 정전 용량층이 형성되고, 이 부분을 통해 신호를 발생해 위치를 검출하는 것이다. 정전 용량 방식은 부드러운 터치로도 빠르게 구동하고 두 개 이상의 지점에서 위치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히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멀티 터치'의 구현이 쉽다. 이러한 '멀티 터치'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휴대 전화 등에 많이 채택되고 있어 정전 용량 방식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항막 방식은 오래 사용할 경우 감압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비해 정전 용량 방식은 내구성이 좋아 수명이 길다. 그러나 정전 용량 방식은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8점]

- ① 터치 패널 가운데 정전 용량 방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② 터치스크린은 정확성과 문자 입력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에 비해 월등한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저항막 방식은 주로 휴대용 게임기, 내비게이션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정전 용량 방식은 휴대 전화 등에 이용되고 있다.
- ④ 정전 용량 방식은 오래 사용할 경우 감압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비해 저항막 방식은 내구성이 좋아 수명이 길다.
- ⑤ 터치 패널은 접촉 입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화면상의 좌표로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28. 윗글과 &lt;보기&gt;의 &lt;그림&gt;을 바탕으로 저항막 방식에 대해 이해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투명 전도막 A에 압력을 가해 누를 경우 최초로 파악되는 것은 입력 위치의 X좌표이다.
- ② 투명 전도막 사이의 '스페이서'는 두 투명 전도막이 잘못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③ 투명 전도막 A에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명 전도막 A와 B에 전압이 가해지지 않는다.
- ④ X좌표가 파악되는 순간 투명 전도막 B의 접촉된 부분과 투명 전도막 A의 전압을 측정하면 입력 위치의 Y좌표를 알 수 있다.
- ⑤ 투명 전도막 A가 휘면서 두 전도막이 접촉하면 그 부분을 통해 전기가 흐르고 그 위치에 따라 투명 전도막에 가해지는 전압의 값이 변한다.



<주관식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1)㉗의 질문 의도는 무엇인지, (2)㉘에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술하시오. [6점]

< 보 기 >

**상답사:**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자 서비스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소비자:** 제 휴대폰의 화면이 갑자기 멈추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근처에 가까운 서비스 센터가 어디에 있는 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상답사:** 그러시군요. 무척 불편하시겠네요. 서비스 센터를 알려드리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비상조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소비자:** 그러시지요.

**상답사:** ㉗**손님의 휴대폰은 멀티 터치**의 구현이 가능한 기종입니까?

**소비자:** 네. 멀티 터치가 가능합니다.

**상답사:** ㉘**손님께서 지금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는지 **알고**신가요?

**소비자:** 아니요. 맨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답사:** 네! 그렇다면 비상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손님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세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무단 전송·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